

## 會計學科의 문제점과 개선책

南 相 午  
(서울大 經營學科)

### 1. 머리말

우리나라 대학에 會計學科가 1976년 3월 처음 西江大에 개설되었으므로 회계학과가 설치된 지 어언 14년이 지났다. 그동안 회계학과가 여러 대학에 설치되고 회계학과 소속의 교수와 학생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회계학과가 개설된 지 오래이고 회계학과 관련의 교수와 학생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립된 학과로서 회계학과와의 位相은 잘 정립되지 못하고 있고 제도상·운영상의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회계학과와의 전공 학문인 會計學(accounting)은 오랜 학문의 역사를 갖고 있어서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위치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회계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음으로써 회계학을 전문적으로 교육·연구하는 독립된 학과인 회계학과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회계학과를 독립된 학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음의 회계학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서도 주장된다.

원래 회계학은 기업 등의 회계 자료를 수집·처리하여 會計報告書인 財務諸表(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등)를 작성하는 것만을 다루는 학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회계의 전통적 기능

으로 회계의 일면만을 본 것이다. 회계가 사회와 사회의 여러 이해 관계자(정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회계학의 사회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계에 의해 창출되는 회계 정보는 이해 관계자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다음과 같이 이용된다. 먼저 개인인 투자자는 투자 의사 결정에, 채권자는 신용 의사 결정에, 근로자는 임금 협상에, 증권 분석가는 재무 분석에 이용한다. 다음으로 기업은 경영자가 경영 계획의 수립과 경영 통제에 관리적으로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우선 세금 결정에 이용하고, 경제 정책의 수행과 정부 규제에 이용하는데, 예를 들면 물가 통제, 여신 관리 규제, 자본 시장 규제 등에 이용한다. 그밖에 정부의 각종 경제 통계도 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회계학의 사회적 중요성은 회계학과에서 사회의 회계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를 양성·배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정된다. 기업의 회계 담당자, 정부의 경제 부처 공무원, 회계 전문직의 공인 회계사와 세무사, 고등학교의 상업 교사, 대학교의 회계학 교수가 그 예이다.

본고에서는 회계학과와의 발전을 위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특히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연구 프로젝트인 '會計學科 教育프로그램 開發研究'의 일환으로 1989년

12월 2일 韓國會計學會 定期總會에서 학회의 협조로 실시한 전국 회계학 교수 99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참고하여 회계학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다.

## 2. 特性和 現況

### 1) 教育目標

회계학과는 보통 社會系列의 학과로 분류되는데, 회계학이 사회와 인간을 다루는 社會科學의 하나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社會系列 學科의 기본적 교육 목표는 '사회의 발전과 인간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계학과의 기본 교육 목표 역시 '회계에 의하여 사회의 발전과 인간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므로 회계학과에서는 교육 목표를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회계학과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 세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理論과 實務에 관한 교육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종래에는 회계학을 실무적 학문으로만 인식하여 단순히 회계 장부를 기입하는 기술적 학문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회계학은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연구의 수행으로 이론이 크게 발전하였다. 모름지기 이론의 뒷받침이 없는 실무에는 문제가 많이 있으므로 이론과 실무를 병행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최근 재정립된 회계의 意義·目的 등 회계에 관한 견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회계란 기업 등의 경제적 정보를 측정·전달하는 것으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에서는 단순한 장부 기입보다는 회계 정보를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측정·전달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情報理論·意思決定理論·커뮤니케이션理論·行動科學理論 등을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이 회계학과를 졸업한 후에 사회의 어느 분야로 진출할 것인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많은 학과가 졸업 후의 진

로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회계학과 졸업생은 졸업 후 가능하면 회계학과 관련이 있는 직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세 가지 점을 고려하여 회계학과의 교육 목표를 정립하여 보면, 會計學科의 教育目標은 회계학과 학생들에게 기업 등 경제적 실체에 관련한 경제적 의사 결정을 위한 회계 정보의 측정과 전달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교육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기업·정부의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회계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 隣接學科와의 關係

회계학과는 인접 학과로 가장 관련이 있는 학과는 經營學科이고, 그밖에 經濟學科, 貿易學科, 商業教育學科, 社會學科, 心理學科, 數學科, 統計學科 등이 있다.

경영학과와 가장 관련이 있다는 것은 경영학을 기능적으로 분류할 경우 회계학이 마케팅, 生産管理, 財務管理, 人事管理 등과 함께 경영학의 한 분야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계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서 회계학은 경영학과에서 교육되고 회계학 교수도 경영학과에 속한다. 또 회계학이 경영학의 기초 과목으로서 마케팅 등 경영학 분야에 대한 서비스 과목이 된다는 점도 있다. 그밖에 회계학과에서는 학문의 유사성에 비추어 많은 경영학 과목을 회계학과 과목과 함께 수강하여야 한다.

인접 학과로서 경제학과 등은 회계학과 학생들이 회계학을 전공으로 하면서 회계학의 학습에 도움이 되거나 폭 넓은 학문적 지식을 갖도록 회계학과 과목과 더불어 선택하는 학문의 과목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 3) 設置大學과 募集定員

1989년말 현재 회계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전국 118개 4년제 대학 중 50개 대학이다. 1990학년도 모집 정원은 4년제 대학 총 모집 정원 199,380명 중 3,961명으로 약 2%를 차지하고 있고, 재학생 수는 15,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 중 회계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13 개교(모집 정원 906 명)로 지방 소재 대학(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캠퍼스 포함)은 39 개 대학에 3,055 명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회계학과는 서울 소재 대학보다는 지방 소재 대학에 다수 분포되어 있다. 더군다나 이른바 서울의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에는 회계학과가 없는데, 서강대에 우리나라 최초로 회계학과가 1976년 3월에 설치되었다가 5년 후인 1981년 3월에 없어졌다는 사실은 회계학과의 발전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示唆한다.

야간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15 개교(모집 정원 725 명)로 회계학과 총 모집 정원의 18.3%를 차지하고 있는데, 4년제 대학 총 모집 정원 중 야간 학과 총 모집 정원의 비율 5.2%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것은 미진한 직장인들의 회계학과 지원이 다른 학과에 비하여 많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회계학과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경영학과는 전국 82 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고, 모집 정원은 10,169 명이다. 경영학과의 평균 모집 정원은 124 명인데, 회계학과의 평균 모집 정원은 84 명이다. 이로써 모집 정원의 관점에서 경영학과가 회계학과보다 대형 학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경영학과는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 설치되어 있어 회계학과보다도 더 많은 대학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밖에 회계학 교육이 이루어지는 다른 학과로는 상업교육학과, 세무학과,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축산경영학과, 수산경영학과, 항공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등이 있다.

#### 4) 敎授 數와 施設

1989년말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회계학 교수의 수는 회계학과 소속의 교수가 230 명이고, 경영학과 소속의 교수가 82 명이어서 합계 312 명이다. 이로써 회계학 교수의 73.7%가 회계학과에 재직하지만, 경영학과 소속의 교수도 상당수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회계학 교수는 상업교육학과, 경영정보학과 등에도 재

직하는 분이 있으므로 전국 대학에 400 여 명 정도가 재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회계학과의 교수 1인당 학생의 비율은 약 69 명으로 회계학 교수의 강의 부담이 많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나 1986년에 회계학과의 모집 정원이 4,589 명이었고, 소속 교수의 수가 183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교수 부족의 문제는 약간이나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회계학 교수는 회계학과와 경영학과에만 소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과에도 소속되기도 한다. 상업교육학과, 세무학과, 경영정보학과, 관광경영학과, 수산경영학과, 항공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등에도 전임 회계학 교수가 필요하여 회계학 교수가 약간 명이나마 재직하고 있다.

회계학 과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이론적이고 분석적인 과목으로 財務會計, 會計理論, 會計監査 등이 있다. 다음에 실무적이고 계산적인 과목으로 會計原理, 中級會計, 高級會計, 管理會計, 原價會計, 會計情報시스템 등이 있다. 전자의 경우 강의는 설명식·토론식으로 진행되므로 별도의 강의 기자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많은 판서를 요하고 강의 분량도 많으며 계산 연습도 필요하고 오버헤드 프로젝터 컴퓨터 등의 사용이 필요하다.

1989년 12월 2일 韓國會計學會의 定期總會에 참석한 회계학 교수를 중심으로 행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회계학 교수가 회계학 강의를 위한 오버헤드 프로젝터, 슬라이드 프로젝터, 학생 실습용 및 연구용 컴퓨터는 물론 실습용 Lab, 강의실, 세미나실 등 강의 장소까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시설과 장소의 부족은 회계학과의 강의가 단순히 흑판에 의한 교수의 일방적 강의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행정 당국자의 잘못된 생각과 시설과 장소의 확충없이 학생 수만 증가시킨 결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3. 獨立學科로서의 位相 定立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계학과는 아직 독립된 학과로서의 위치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와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학과와 회계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것이다. 회계학은 기술적 학문으로 簿記를 다루고 會計帳簿를 작성하는 학문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계학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발전과 관련이 별로 없는 학문으로까지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수록 잘못된 인식은 불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독립된 학과로서의 특징이 잘 부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회계학과가 독립된 학과로 존속·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과, 특히 경영학과와 다른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회계학과 교과과정을 보면 경영학과와 거의 같거나 다른 점이 없는 경우도 많다. 회계학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계학과 고유의 교과목이 개발되고 강의되어야 한다. 경영학과에서는 마케팅, 생산관리, 재무관리 등 많은 분야를 골고루 학습하게 되지만, 회계학과에서는 기초의 경영학과 과목을 수강하고 보다 상세하고 전문적인 회계학 과목을 학습하여야 하는 것이다.

셋째, 회계학과를 독립시키는 것은 학문 영역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즉, 회계학은 경영학의 한 분야이므로 경영학과로서 충분하지 별도의 학과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부 수준에서는 경영학과만 두고, 대학원 수준에서 경영학과를 세분하여 회계학과 등 각 경영학 분야의 학과를 둘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서강대에서 최초로 회계학과를 설치하였다가 없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도 생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회계학은 다른 경영학 분야와 상당히 다른 성격의 학문이고, 사회에서도 회계학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회계에 관한 전문 인력도 배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회계학은 기초 과학 또는 순수 과학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다른 경영학은 응용 과학의 성격으로서 경영 관리를 위한 학문이 되고 있다.

넷째, 회계학과와 학과 명칭에 문제가 있다.

회계학과라는 명칭은 회계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음으로써 사회에서나 학생들이 매력적인 학과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다. 학과 명칭의 후보로는 會計情報學科, 經營情報學科, 會計財務學科 등이 있을 수 있다. 회계정보학과는 전통적 회계학 이외에 컴퓨터에 의한 회계 정보 시스템을 교육하는 학과로 인식될 수 있다. 경영정보학과는 회계학 이외에 계량정보, 컴퓨터를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학과로 생각될 수 있다. 회계재무학과는 회계학과 관련이 많은 재무 관리와 결합된 학과가 될 경우 붙여질 수 있다.

설문 조사에 의하면, 회계학 교수들은 학과 명칭의 변경에 대해 압도적으로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응답한 85명 중 68명이 회계정보학과를 선호하였다. 이와 같이 회계정보학과를 선호하는 것은 최근의 사회가 情報化社會로 이행하고 있고, 컴퓨터와 관련된 학과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입학하려는 학생에게 매력 있을 수 있고, 졸업 후 취업에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보'라는 용어를 부가함으로써 종전의 회계에 관한 이미지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입학과 취업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회계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음으로써 경영학과보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커트라인도 낮아질 수 있다. 졸업 후의 취업에 있어서도 경영학과보다는 사원 모집의 기업 수도 적고 진출하려는 직장도 협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기업의 사원 채용 공고에 경영학과는 대부분 포함되나, 회계학과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학·취업의 문제점은 회계학과에 대한 홍보, 학과 명칭의 변경과 함께 회계학과와 특성화·전문화로 사회의 회계학과 졸업생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회계학과가 발전되지 못한 이유로 서울의 명문 대학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에 회계학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들 학교가 우리나라 대학의 리더 그룹인 만큼 그러한 이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들 학교에 회계학과 또는 회계정보학과가 설치됨으로써 회계학과와 회계학의 발전이 가속될 수 있을 것이다.

#### 4. 教科課程의 問題點과 改善策

회계학과가 독립된 학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과과정을 개선하여 새로운 교과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1989년 12월 2일 韓國會計學會 定期總會에 참석한 회계학 교수들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교과과정의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이 모아졌다.

① 會計原理는 회계학과에서 學科 必須教授科目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78.4%의 찬성).

회계원리는 과목의 중요성에 비추어 전공 필수 또는 학과 필수 교양 과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교수가 학과 필수 교양 과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찬성하였다. 학과 필수 교양 과목으로 지정될 경우, 다른 전공 필수 과목을 더 많이 지정할 수 있는 利點이 있게 된다.

② 다수의 교수는 專攻必須 學點이 30 학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계학과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 학점 140 학점 중 전공 필수 학점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30 학점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교수의 수가 가장 많았다.

③ 專攻必須科目으로는 재무회계, 중급회계, 회계이론, 원가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회계정보시스템의 8 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여기서 재무회계는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많았으나, 개설할 경우 문제 풀이의 과목보다는 이론 중심의 과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였다.

④ 회계학을 세분하여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회계정보시스템 분야 등의 5 개로 구분할 경우 각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재무회계 분야 40%, 원가관리회계 분야 20%, 회계감사 분야 10%, 세무회계 분야 10%,

회계정보시스템 분야 10%, 기타 10%로 의견이 집약되었다.

이로써 재무회계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분야이며, 다른 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⑤ 인접 학문의 교과목으로서 회계학과 학생들이 수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회계학 교수 과반 수 이상이 체크한 과목은 다음과 같다.

- 학과 필수 교양 : 경제학원론
- 전공 필수 : 경영학원론
- 전공 선택 : 경영수학, 경영통계학,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상법, 계량경영분석, 경영정보시스템, 마케팅, 생산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 등

[ · 일반 선택 : 경영학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영과학 등(위와 중복될 수도 있음).

⑥ 경영학과에 지원할 회계학 과목은 회계원리, 관리회계, 원가회계의 3 과목이 추천되었다.

한편, 관리회계와 원가회계의 구별이 모호할 수 있는데, 이의 해결 방법으로 管理會計原理를 개설하여 관리회계원리—원가회계—관리회계의 3 단계로 원가관리회계의 강의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설문 조사 결과 제시된 會計學 커리큘럼은 위의 <표 1>과 같다. 이 표는 1989년 12월 2일 韓國會計學會의 定期總會에 참석한 회계학 교수들의 의견과 연구 프로젝트 자문위원 20인의 의견을 집약한 것이다.

<표 2>는 대안 모형으로 연구 프로젝트 팀이 이상적인 관점에서 설계한 것이다.

<표 2>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ㄱ. ① 회계학 과목을 분야별로 학습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배열하였다.

- 가. 재무회계 분야의 회계 실무  
회계원리→중급회계→고급회계
- 나. 재무회계 분야의 회계 이론  
재무회계(론)→회계이론
- 다. 원가관리회계 분야  
관리회계원리→원가회계→관리회계
- 라. 세무회계 분야

〈표 1〉 회계학 커리큘럼 설문 조사 결과

학년 학기	1	2	3	4
1		경영통계학** 지급회계 I** 원가회계**	재무관리** 회계감사** 회계정보시스템** 세무관리론***	재무제표분석*** 비영리회계***
2	회계원리* 경영학원론*	중급회계 II** 관리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연습*** 고급회계*** 회계자료처리론*** 회제이론**	회계학 특강***

\* : 학과 필수 교양 과목  
 \*\* : 전공 필수 과목  
 \*\*\* : 회계학 분야의 전공 선택 과목

〈표 2〉 회계학 커리큘럼—이상적 모형

학년 학기	1	2	3	4
1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관리회계원리 재무회계(이론, 론) 중급회계 재무관리	회제이론 (고급)관리회계 세무관리론 고급회계감사	재무제표분석 회제자료처리론
2	회계원리 경영통계학	원가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상 법	고급회계 회계정보시스템	회계학 특강

\* 교양 과목 : 경제학원론, 회계원리, 관리회계원리  
 \* 전필 과목  
 · 회계학 분야 : 재무회계(이론, 론), 중급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회제이론, (고급)관리회계, 회계정보시스템  
 · 인접 학문 분야 : 경영학원론, 경영통계학, 재무관리  
 \* 교양 과목과 전필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선 과목임.  
 \* 중급회계, 원가회계, 고급회계 등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두 학기에 나누어 강의할 수 있음.

세무회계→세무관리론  
 마. 회계감사 분야  
 회계감사→고급회계감사  
 바. 회계정보시스템 분야  
 회계정보시스템→회계자료처리론  
 이상의 두 모형에 대해 연구 프로젝트 팀의 견해로는 〈표 1〉은 각 교수들의 주관적 의견, 각 학교의 해당 분야 교수의 재직 여부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므로 발전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상적 모형인 〈표 2〉의 도형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 5. 맺는 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회계학과가 독립된 학과로서의 위상을 갖고, 이러한 바탕에서 회계학과의 현실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들 문제점을 해소 내지 개선하는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문제점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敎科課程의 개발과 관련하여 설문 조사에 의한 여러 회계학 교수들의 공통된 의견을 집약한 교과과정과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교과과정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회계학과가 대학교의 전통적인 학과인 법학과,

경제학과, 영문학과 등과 비슷한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미국에는 회계학과는 물론 많은 대학에 會計大學(school of accountancy)이 설립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에는 회계대학은 고사하고 회계학과마저 독립된 학과로서의 위상이 잘 정립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회계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회계학과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커질수록 회계학과의 발전이 기대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 이외에도 회계학과가 다른 학과와 다른 특성과 전문성을 갖출 경우 회계학과는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되고 계속 발전될 것이다. \*

### 〈投 稿 案 內〉

「大學教育」 제49호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教育에 관련된 論說, 대학에서의 研究·教授 및 社會奉仕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할 수 있는 主題에 관한 논의, 각 學科의 교육 과정이나 교수·학습 활동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와 외국에서의 연구 동향 소개, 본문에 게재된 글들에 대한 反論 원고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글
 

① 論 壇	② 教授談論	③ 學科別 教育課題
-------	--------	------------
2. 枚 數—200자 원고지 35매, 45매 또는 54매 (②는 15매 또는 23매)
3. 期 限—1990년 11월 20일
4. 稿 料—매당 3,0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提出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教育協議會  
(TEL 783-3891, 780-7942, FAX 780-8311)
6. 附 記
  - ① 國漢文을 혼용하되 漢字를 제한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 ② 論壇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게재하며, 원고는 戻려드리지 않습니다.